



# 색상과 심리 ①

##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 김용숙 청아STUDIO 대표  
백석문화대 스마트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겸임교수

- ①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 ② 색의 상징 (color symbolism)
- ③ 생활에서 즐기는 색 (color coordination)

최근 후반작업 뿐 아니라 촬영단계에 있어서도 색이 주는 느낌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색의 기술적인 면보다 색 자체의 의미와 색이 주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후반에서 색을 다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주



### 색과 인간의 심리

인간은 외부에서 얻는 모든 정보의 87% 이상을 '눈'이라는 시각 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다고 한다. 우리 생활의 환경적인 요소 중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색채로 둘러싸여 있기에, 시각전달에 있어서 색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단지 눈으로만 색채를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면서 흑백이나 컬러의 색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분명히 조금 전에 들렸던 커피숍이나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커튼, 벽지 색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 생활의 환경적인 요소 중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색채로 둘러싸여 있기에, 시각전달에서 색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수면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꿈을 꾸며 색을 본다거나, 의식의 세계에서도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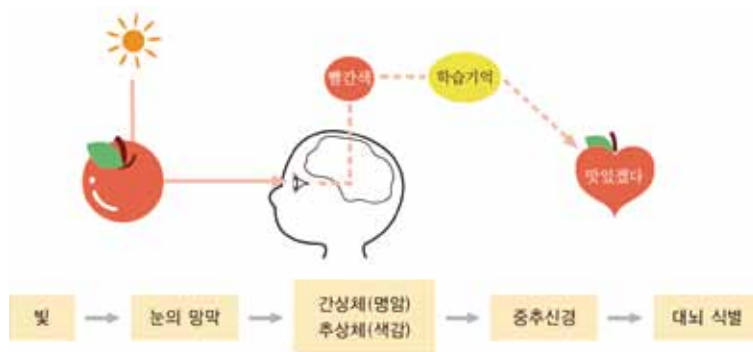


전에 보았던 대상의 색을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과거의 기억들로 어떤 색을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색채는 시각적 정보 이외에 문화적, 관념적, 상징적, 생리학적 등 다양한 인식 효과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표현에서도 사람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나타내기 위해 색채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 : 새까맣게 타버린 내 마음, 새빨간 거짓말 등) 이러한 색의 특성으로 색채는 영상, 디자인이나 컬러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관계되어 색채 치료, 색채 심리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 색의 지각

빛과 밝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인식의 주체를 빛에 의해서 눈으로 지각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고, 판단하는 것을 '색각'이라고 한다. 색의 지각 과정은 빛에 의해 물체의 색을 눈으로 보게 되고, 대뇌의 식별로 색을 느끼는 것이다. 눈은 색을 보지만 우리의 뇌는 색을 느끼고 해석하여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느끼게 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때 비로소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색을 보게 되는 마지막 과정은 뇌에 '기억'이나 '자극'이 가해진 것이다. 뇌는 색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인상,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예로 우리는 파란색을 차갑게 느끼며 빨간색은 따뜻하게 느낀다. 또한 안개가 낀 듯한 중간 톤의 색은 부드럽게 느끼며, 원색의 선명한 색은 생동감 있게 느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뇌의 작용으로 우리의 경험에 의해 지각된 감각이다.



#### 눈은 색보다 명암을 먼저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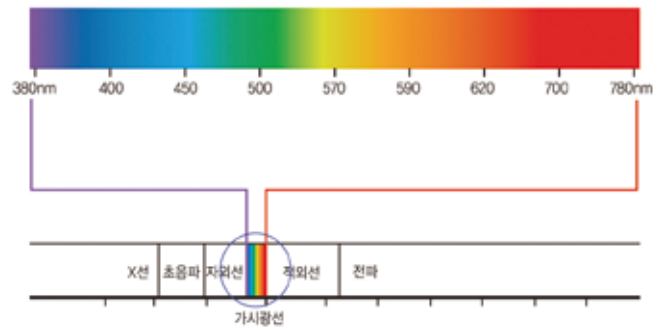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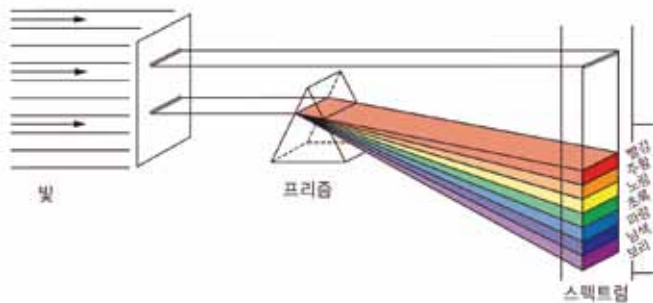
망막은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시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상체는 명암을, 추상체는 색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색맹이나 색약은 망막의 추상체가 손상되어 색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말한다.

색상 대비로 아름답게 채색한 건물도 빛이 없거나 어두운 상태에서는 채색된 고유의 색을 볼 수 없다.

### 빛의 파장과 색

빛과 색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색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며, 색감각은 빛에 대한 지각적 현상이다. 따라서 색채에 있어서도 빛은 기본이 되는데, 특히 빛의 여러 전자파 중에서도 색채로 지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가시광선(visible light)이라 한다. 우리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380nm의 보라색 파장의 단파에서 780nm의 빨간색 파장의 장파에 이르는 범위이며, 여기서 780nm 이상은 적외선, 380nm 이하는 자외선의 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1666년 아이작 뉴턴은 빛의 파장이 굴절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성질을 알고 프리즘을 이용하여 가시광선의 색을 밝혀냈다.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광된 빛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단색광이다. 모두 7개로 이루어진 음계와 무지개색은 17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행운의 숫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명과 색**

태양빛이 지닌 파장의 구성을 백색광이라 하며, 우리는 태양빛을 무색으로 느낀다. 백열등이나 형광등 같은 인공조명은 태양빛과 같은 완전한 백색광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즉, 광원의 특성에 따라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채가 각기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형광등은 파란색 파장인 중단파가 우세하므로 색을 창백하게 보이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백열등은 빨간색 파장인 장파가 우세하므로 난색이 돋보이는 특성이 있다. 또 터널 안에서는 물체의 색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물체의 표면이 광원의 빛에 포함되지 않은 파장을 생성하지 못하고, 그 파장에 해당하는 색광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원에 따른 색의 변화의 예**

-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의 색감이 집에서 다르게 느껴진다.
- 은은한 불빛의 카페에서 피부톤이 생기 있어 보인다.
- 결혼식장에서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고급스러워 보인다.
- 터널 안에서 여인의 붉은 입술이 회색으로 보인다.
- 정육점의 고기가 싱싱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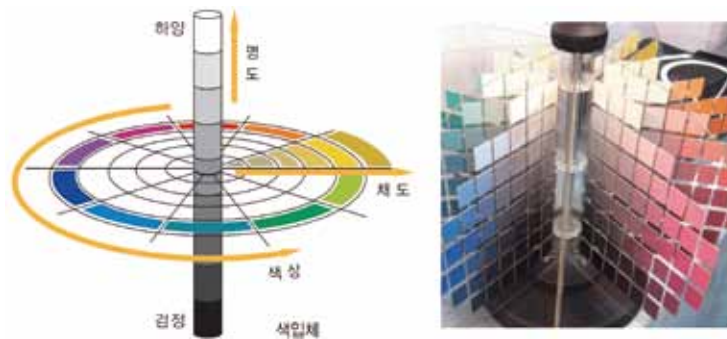
왼쪽 이미지가 실제 대상의 색이며, 오른쪽 이미지는 광원의 특성에 따라 우리의 눈에 색이 다르게 지각되는 경우이다.



백열등은 빨간색 파장인 장파가 우세하여 난색이 더해진 듯 보이게 하며, 형광등은 파란색 파장인 단파가 우세하여 모든 색을 창백하게 보이게 한다.

### 색의 종류와 삼속성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뉜다. 하양, 회색, 검정은 무채색이고, 이외의 모든 색을 유채색이라 한다. 무채색은 명도만 있으며, 유채색은 명도, 채도, 색상을 가지는데, 이것을 색의 3속성이라고 한다. 색은 이 3속성의 차이로 구별된다. 이를 입체로 나타낸 것을 색입체라 하며, 세로축이 명도, 가로축이 채도, 그리고 구(球)를 가로로 반 나눈 단면의 원주를 색상이라고 한다.



색입체는 미국의 화가이며, 교육자인 먼셀(Munsell, A.H, 1858~1918)에 의해 창안되었다. 색입체로 색상, 채도, 명도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색상은 색을 구별하기 위한 명칭이다. 빛의 스펙트럼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상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의 기본 색상이지만 각 색상의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무수한 색상이 존재한다. 스펙트럼으로부터 전개된 많은 색상들의 위치와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인접하도록 등근 고리의 형태로 배치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 방향을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으로 나누고 각 방향에 적합한 색을 정하여 배열하였다. 여기서 다섯 방향을 나타내는 색을 오방색(청, 적, 백, 흑, 황)이라 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색채가 아닌 우주를 인식하는 척도로 여김으로써 색채 철학을 낳았다.

서양에서는 점성술에 이용되었던 12자리의 별자리에 맞는 색채를 정하여 그 특징을 구분하였다. 색채 연구는 그리스, 로마, 중세의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의 번성에 힘입어 크게 발전되었고, 르네상스 이후 프레스코화, 템페라의 융성으로 그림물감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1666년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 스펙트럼을 발견한 후 빛의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왔고, 이후 삼원색설(빨강, 파랑, 노랑), 색상환, 빛의 삼원색, 색입체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1905년 먼셀의 색채 체계가 발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색상** : 빨강, 노랑, 초록 등의 표정이나 각각의 색들이 서로 다른 색과 구별되는 성질
- 명도** :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 채도** : 색의 맑고 탁한 정도
- 톤** : 색상의 명도, 채도 등 여러 가지를 아울러 톤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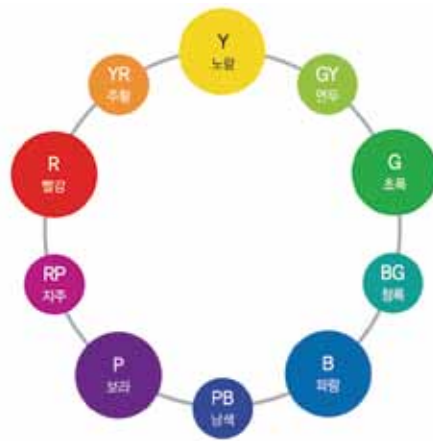
표색계에서 색상, 명도, 채도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색상** : color → hue(H)
- **명도** : lightness → value(V)
- **채도** : saturation → chroma(C)





방위와 오방색



맨셀의 기본 10색상환



붉은색의 조화(유화/180×220cm/1908년 작)  
마티스(Matisse, Henri/1869~1954/프랑스)  
실내의 빨강과 밖의 초록이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룬다.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누어진다. 무채색은 빛을 대부분 반사하여 나타나는 하양과 빛을 대부분 흡수하여 나타나는 검정, 하양과 검정의 혼합색인 회색을 말한다. 무채색은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인 명도만 존재할 뿐, 색상이나 채도의 속성은 없다. 하양, 검정, 회색을 뺀 나머지의 색들을 유채색이라 한다. 즉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이 유채색이며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무채색은 밝고 어두움의 명도차이만 존재한다.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색이다.

명도(lightness, value)는 색채의 밝기(명암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인간의 눈은 색의 삼속성 중 명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며 색상, 채도 순으로 지각하게 된다. 색의 삼속성 가운데 색상과 채도는 유채색에만 있는 성질이지만, 명도는 무채색과 유채색 모두에 있는 성질이다.



명도의 차이가 적은 경우-실제 색상의 차이가 크지 않아 부드럽고 수수한 느낌이 강하다. 직접 촬영한 왼쪽의 컬러이미지를 우측의 흑백이미지로 바꿔보면 흑백의 대비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도(saturation, chroma)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 선명하고 흐릿한 정도를 말한다. 색입체에서 무채색의 축에 가까울수록 채도는 낮아지며, 멀어질수록 높아진다. 유채색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도' 또는 '포화도'라고도 한다.



저채도의 경우 - 수수한 이미지, 성숙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좋다.

## 톤(tone)

색은 무한으로 만들어진다. 원색끼리 섞여 2차색이 되고, 거기에 다른 색이 섞이면 또 다른 색상이 만들어진다. 또 그 색상에 무채색이 섞이는 정도에 따라서도 무수히 많은 색상이 만들어진다. 색의 혼합에서 순색에 하양과 검정을 섞는 정도에 따라 명도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만 색의 맑은 정도는 모두 줄어들어 채도는 낮아진다. 색의 이러한 변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 명도와 채도를 모두 고려한 톤(tone)이며, 따라서 톤은 색상의 명도와 채도에 의해 표현되는 밝은 톤, 어두운 톤, 화려한 톤, 수수한 톤 등의 색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밝은 톤

강한 원색에 하양을 혼합한 정도에 따라 옅은 색, 연한 색, 밝은색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색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좋다. 밝은 톤(tint)은 낭만적인 이미지 때문에 유아용품이나 여성을 위한 화장품, 잠옷, 속옷, 침구류에 많이 사용되며, 달콤하고 감미로운 이미지는 아이스크림이나 캔디류 등의 기호품의 맛을 돋우어주는 역할을 한다. 밝은 톤의 배색은 연하고 약한 느낌을 주며, 난색 계열의 연하고 밝은 색감은 깨끗하고 청량한 느낌을 전달한다.

|                          |                          |                          |                          |                         |                         |
|--------------------------|--------------------------|--------------------------|--------------------------|-------------------------|-------------------------|
| 2-25-53-0<br>249-190-105 | 42-1-4-0<br>143-212-222  | 3-16-14-0<br>245-212-200 | 3-16-32-0<br>246-212-158 | 2-5-23-0<br>250-240-190 | 3-9-50-0<br>245-229-121 |
| 0-0-0-0<br>255-255-255   | 15-0-15-0<br>217-240-206 | 05-4-5-0<br>00-82-234    | 24-7-0-0<br>194-216-233  | 5-20-0-0<br>239-201-227 | 7-0-29-0<br>237-246-179 |



밝은 톤의 색상과 이미지들

어두운 톤

검정이나 낮은 명도의 색이 혼합된 어두운 톤(dark, shade)은 무겁고 엄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명도가 낮아지면 뚜렷한 색상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그 느낌은 차분하고 신중하며 중후하다. 어두운 톤은 가죽이나 목재에서 그 풍부함이나 충실함이 잘 나타난다. 그러나 넓은 공간이나 무겁고 딱딱한 물체에 어두운 톤을 사용하면 위압감이 들 수 있으므로 채광이나 조명 장치를 적절히 이용하고 면적대비를 사용하여 명도 대비의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                         |                         |                          |                          |                         |
|--------------------------|-------------------------|-------------------------|--------------------------|--------------------------|-------------------------|
| 0-0-0-100<br>0-0-0       | 62-34-99-20<br>78-96-20 | 48-95-38-53<br>87-10-53 | 25-58-94-12<br>168-63-15 | 70-45-100-43<br>44-54-12 | 93-31-88-20<br>17-81-41 |
| 37-95-64-35<br>104-10-31 | 43-53-59-56<br>63-9-24  | 95-78-32-48<br>13-20-52 | 40-40-98-26<br>113-92-13 | 35-61-97-29<br>116-59-10 | 44-65-06-55<br>64-32-7  |



어두운 톤의 색상과 이미지들



### 수수한 톤

밝은 회색이나 중간 회색이 혼합된 흐릿하고 탁한 색에 해당하므로 차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수수한 톤(moderate)은 자연의 소재에서 발견되는 색이므로 편안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또한 순색이 지닌 강렬함이 중화되기 때문에 수수하고 소박하며 안정감이 있다. 난색 계열의 수수한 톤은 햇빛에 그을린 피부, 마른 벗집, 불에 구운 토기, 갓 구워낸 빵의 껍질과 같이 불이나 햇빛과 관련된 연상을 불러일으키며,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웰빙에 맞추어 초록색 계열을 기본으로 한 수수한 톤의 배색은 은은하고 담백한 멋을 자아내기에 좋다.



수수한 톤의 색상과 이미지들

### 화려한 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화려한 톤(vivid, strong)의 조화는 생동감, 경쾌한 이미지, 활동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스포츠 용품, 등산복, 놀이기구, 완구, 문구류의 분위기 연출에 많이 사용된다. 화려한 톤에 하양이 약간 첨가되면 밝고 유쾌하며, 명랑한 느낌을 준다. 또한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옥외간판, 신호판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색의 3속성(색, 명도, 채도)으로 톤, 배색, 분위기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각각의 색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